

특별취재

익산 호우 피해주민 재난지원금지급

익산시는 최근 장마와 맞물린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8월 중순까지 128세대에 재난지원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 피해를 입거나 농·축·수·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비닐하우스·농경지·축사·가족·수산물·임산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할 수 있다. 사유재산 피해 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1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경찰, 월명공원 화장실 등 '여성안심비상벨' 설치

월명공원 등 관내 근린공원 공중화장실에 '여성안심비상벨'이 설치됐다.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군산시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안심비상벨설치를 추진했다.

이번에 설치된 비상벨 장소는 월명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포함, 18개소 87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찰청이 작동하고 경보음이 울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중화장실 각 칸의 내부와 세면대 등에 설치,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강화하도록 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무더위쉼터 방문 경로당 운영·관리상태 점검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현을 익산시장이 무더위쉼터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운영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인부를 확인했다.

정현을 시장은 28일 오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용동면 신왕경로당과 화배경로당 2개소를 찾아 무더위쉼터의 안전성과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더위쉼터에 모인 어르신들에게 폭염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설명하고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무더위쉼터는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인 만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취임 100일 정현을 익산시장, 직원들에게 협조·이해 당부

“익산 발전 위해 전력질주 해줄 것”

취임 100일을 맞은 정현을 익산시장이 직원들에게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 시장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00일 동안 오직 시민들을 위해 뛰며 믿고 따라와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 시장은 취임 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직 안정화를 내걸고 일하는 방식 개선, 친절행정, 성과주의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호트러진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데 주력해 왔다.

특히 구습과 관행에 따른 경직된 업무 시스템을 과감히 혁파하고 철저한 성과주의 제도를 강조하며 직원들의 성취동기를 자극했다.

정 시장은 “서있는 말에는 채찍하지 않는다”며 “그 동안 직원들에게 성과나 친절, 창의적 사고 등 여러 가지 업무적 혁신을 주문한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잠재된 역량과 가능성을 보았기에 그것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고 말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다만 아쉬웠던 점으로는 법과 제도에만 기댄 일관된 행정편의주의를 지적했다.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



취임 100일을 맞은 정현을 익산시장이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잘못도 나올 수 있다”면서 “이런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기준도 정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정 시장은 “시민입장에서 두 번 세 번 다시 생각하고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다 보면 전향적인 결론에 다다를 것이며 설사 안 되더라도 그 이유를 시민들이 공

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수용하고 이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율러 정 시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시민들의 행복과 익산 발전을 위해 함께 전력질주 해줄 것을 적극 주문하며 직원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자활센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협약

10개 구간 제초작업 실시·정기 모니터링·정비 등 비예산으로 시행

군산시는 최근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예방과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군산지역자활센터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제초작업 등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업무와 주요 자전거도로 10개 구간 제초작업 실시, 자전거도로 정기 모니터링 실시 및 정비 대상지 통보, 자전거 행사시 제초작업 등 행사장 주변 환경정비로 유지관리 사업은 비예산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자전거도로의 경우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에 따른 예산부족과 청소차 진입이 어려워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산지역자활센터와 협약을 체결, 군산시 관리구간인 금강철새자전거길(2.2km) 제초작업 등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군산지역자활센터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전거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며 “자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지역자활센터는 지난 5월 개회

한 망해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행사장과 자전거도로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자전거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로 시민들의 자전거 안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군산지역자문회 센터 민간위탁운영 단체이다.

군산=문정곤기자

태어난지 3일 만에 영아원에 맡겨져 홀로 자란 “최동훈씨 부모·가족 찾아주세요”

태어난지 3일 만에 영아원에 맡겨져 홀로 자란 최동훈(본명 최복래, 27)씨가 부모와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는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동훈 씨는 1980년 4월 3일 군산시 나운동 주공아파트 2동 508호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태어난지 3일 만에 군산 모세스 영아원에 입소됐다.

이후 군산 애육원을 거쳐 8살에 익산 보육원으로 입소한 후 대학을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헤어진 부모를 애타게 찾고 있다.

그동안 최 씨는 가족을 찾다가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 씨가 맞겨질 당시 영아원의 아동자료카드에 주소는 ‘군산시 나운동 주공아파트 2동 508호’와 이름은 최복래이며, 아버지가 질병으로 인해 노동력이 없고 생계

가 곤란해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시에 보호를 의뢰한 것, 선천성 심장질환과 가족이 있었다는 등 기록이 남아있다.

모세스 영아원에서는 당시 최 씨가 질병으로 많이 아프고 미숙산이 태어나서 영아원에 오기 전 개장병원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했다.

최 씨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 한다며 어디든 있을 부모에게 “제가 태어날 때 선천적 질병으로 미숙아여서 많이 아팠고 청력도 좋지 않았는데 수술을 받아 지금은 매우 건강하게 잘 성장했다”면서 “이 모두가 부모님께서 저를 좋은 곳에 맡기신 덕분이며 무엇보다 낱아주셔서 오히려 감사드리고 하루속히 부모님을 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다.

(최동훈 010-3339-2786)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수송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복지욕구조사

군산시 수송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맞춤형 복지를 펼치고자 이달 9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한다.

군산 신도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수송동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원주민과 중대형 아파트 입주자의 경제·문화의 양극화가 심한 지역이다.

2016년 6월 기준 군산시 전체 복지대상자의 12%(9184세대, 1만2781명)를 차지하고 있어 군산에서 복지대상

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번 욕구조사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수급자, 수급종지자, 수급신청자, 탈락자, 돌보미대상자, 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 자료, 긴급지원자 등 380가구를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지 문항은 안전·건강·경제·교육·고용문제, 가족관계·사회적 관계 등 욕구영역 73문항으로 이뤄졌으며 해당 지역의 통장·대장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올 상반기 지방세 817억원 징수

군산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 817억원을 징수했다.

군산시는 28일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 889억원(19.1%) 증가한 81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 중 당 해년도 지방세는 113억원이 증가한 784억원을 징수했고, 과년도분은 18억원이 증가한 33억원을 징수했다.

주요 세입 증가 요인은 주민세 2억, 자동차세 52억, 담배소비세 35억, 지방소득세 24억, 과년도분 18억이다.

이와 같은 세수 증가는 군산시의 다

양한 납세 편의제도 지원과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자에 대한 재산·소득 등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부당납액 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낳은 결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고강도 행정제재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무재산·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리로 체납세 규모를 감소시켜 2017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올해 체납세 징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 역오류 차단 및 악취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의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소독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라” 쉽게 설치!

청소액 [박스]

우리의 힘이 비천하게 느껴지고 위생에 지루함이 없도록

식용품 사고 일격에 세척 가능합니다